

우체국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이 종 탁*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 카운티에 웨스터라는 마을이 있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애슈빌까지는 자동차로 한 시간, 대도시인 애틀란타까지 나가려면 세 시간은 났아야 하는 해발 659m의 산골 마을이다. 주민이라고는 어른 아이 합쳐봐야 363명(2010년 통계). 옆집 손가락이 몇 개 인지, 뉘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다 알 만한 사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4만 달러, 1년 내내 이렇다 할 사건사고 하나 없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시골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우체국이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 친지의 편지나 정부 당국에서 주는 복지쿠폰 같은 것들이 모두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들이 멀다하고 우체국을 찾고, 우체국은 그런 주민들의 대소사를 훤히 꿰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우체국이 외부와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이자, 주민들 커뮤니티의 중심인 셈이다.

이 우체국의 마크 재미슨 국장은 현재 14년째 재직 중이다. 미국의 작은 우체국은 개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우리의 별정우체국과 비슷한 형태여서 한 사람이 우체국장을 몇 십년씩 하기도 한다. 미 우정청(USPS) 자료를 보면 뉴욕주 노스랜싱 우체국의 오즈웰 버즐리라는 사람은 나이 18세에 우체국장에 임명돼 93세로 죽을 때까지 74년 동안이나 재직했다. 지난

* 경향신문 출판국장, jtleee@kyunghyang.com

헤에도 오하이오 주와 사우스다코다 주에서 각각 61년, 62년간 우체국장을 지낸 사람이 나왔다. 이들에 비하면 짧지만 그래도 재미슨은 웨스터 우체국 사상 세 번째 장수 국장이다. 시골의 우체국장, 우리나라에선 술잔이 비어도 누구하나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이 우체국장이 최근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미국 우정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개혁안은 효율을 이야기한다. 현재의 우편 네트워크가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고 파괴적이다. 노조가 강해서? 근로자 임금이 많아서? 이 또한 아니다. 진실은 2006년 제정된 우편법이 우정의 재무건전성을 해쳤기 때문이다. 이 법은 퇴직자 건강보험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부담만 없다면 우정의 재정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우정청에서 내놓은 구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글이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자 세이브더포스트오피스(우체국을 살리자)라는 사이트에 주요 글로 게재됐다. 여기까지는 특이한 사연이 아니다. 감동은 “이건 정말 사소한 이야기다”고 시작하는 그 다음 대목에 있다.

“우리 우체국에는 종(鐘)이 하나 있다. 한 소녀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그 소녀의 가족은 매일 편지를 찾으러 우체국에 왔고, 그때마다 소녀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즐겁게 이야기하곤 했다. 소녀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서 듣는 모든 이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었다. 소녀가 부모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종을 선물했다. 종을 칠 때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며, 종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그야말로 소소한 일상이다. 그러나 재미슨 국장은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가치이자, 우편 네트워크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웨스터에서 14년간 일어난 이런 식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는 백 가지 어찌면 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며 ‘우편은 농촌이든, 도시든 고용을 제공하고 책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체를 운택하게 하는 기본적인 공공 사회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재미슨 국장은 우정청의 개혁안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계획하는 비용절감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잃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수익이란 단지 돈의 숫자로 나타나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넌더리 난다’고도 했다.

켄터키 출신의 농부시인 웬델 베리가 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What are people for?)라는 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바 있다. 재미슨 국장은 이 책을 원용해 『인간은, 그리고 우체국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What are people-and the Post Office-for?)라고 글의 제목을 붙였다.

재미슨을 포함해 미국의 우체국장들은 지금 명예퇴직의 기로에 있다. 위로금 2만 달러를 올해 말과 내년 말 두 번으로 나누어 받는 조건이다. 재미슨은 ‘나는 이번 7월에 은퇴할 계획’이라며 ‘인센티브를 고려하긴 했지만 나이도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개인 사정도 있어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일 뿐 인센티브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미슨 같은 사람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거 떠나버리고 나면 미국의 우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에다 안쓰럽고 안타깝다.